

중동 및 튀르키예 관광시장 동향 ['26. 6월]

□ 관광전략 및 정책 동향

- (UAE) 두바이, 관광부문 지원을 위한 2차 경제 인센티브 패키지
 - 두바이 정부는 이란 전쟁 여파로 위축된 비즈니스 및 관광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디르함 규모의 2차 경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함
 - 호텔 객실당 부과되던 숙박세와 호텔·레스토랑 청구서에 가산되던 7%의 시정부 세금 징수를 중단하고, 라이선스 수수료, MICE 행사·전시·컨퍼런스의 개최 허가 및 연기·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

- (UAE) '25년 관광 수입 492억 디르함 달성 발표
 - UAE 관광위원회의 '25년 연례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, UAE 전역의 호텔들은 '25년 동안 전년 대비 9.7% 성장한 492억 디르함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3,200만 명 이상의 호텔 투숙객들이 유치하였음
 - 연간 평균 호텔 투숙률은 79.5%에 도달하여 '25년 동안 약 1억 박의 호텔 투숙 일수를 기록함

- (튀르키예) '26년 1분기 아웃바운드 지출 감소, 인바운드 수입은 성장
 - '26년 1분기 튀르키예 아웃바운드 여행 횟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.1% 증가한 290만 건을 기록했으나, 경기 침체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총지출액은 오히려 9.1% 감소한 22억 달러에 그침
 - 반면, '26년 1분기 튀르키예 인바운드 관광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.2% 증가한 99억 달러, 총입국자 수는 1.5% 증가한 930만 명을 기록하였음

- (이집트) '그리닝 카이로(Greening Cairo)' 프로젝트 발표
 - 이집트 정부는 1인당 녹지 공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역사 지구 복원에 맞춰 비어 있는 도시 공간을 녹지 구역으로 전환하는 '그리닝 카이로' 프로젝트를 채택함
 - 카이로 종교적 및 역사적 명소를 되살리는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문화 및 예술 활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(이집트) '26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 동기 대비 15.6% 증가
 - 이집트 관광유물부 장관은 '26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 입국이 전년 동기 대비 15.6% 증가했다고 발표함
 - 이집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,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(UAE) UAE 호텔업계, 장거리 수요 위축 대응 내수중심 전략으로 전환
 - '아라비안 비즈니스 브리핑'에서 UAE 내 호텔 및 관광 당국은 최근 지정학적 혼란으로 장거리 항공 수요의 가시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
 - UAE 거주민과 걸프 지역 여행객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재정의하고 내수 관광을 상시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필수 시장으로 설정함

□ 비자 및 항공 동향

- (UAE) 아랍에미리트, 6개국 국민 대상 도착 비자 제도 확대
 - 인도네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케냐,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, 미국, EU 회원국, 영국, 싱가포르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가 발급한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했을 경우, UAE 도착 즉시 14일 또는 60일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함

- (UAE) 에미레이트 항공, 왕복 항공권 여행 시 두바이 호텔 무료 숙박 제공
 - 에미레이트 항공은 '26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바이행 또는 24시간 이상 스톱오버 왕복 항공권을 예매한 승객을 대상으로, 예약 등급에 따라 호텔 무료 숙박을 제공하며 하반기 인바운드 유입 극대화 유도
 - 탑승권 제시만으로 600여 개 이상의 레스토랑, 스파, 어트랙션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'마이 에미레이트 패스' 도입

- (사우디아라비아) 새 '움라(Umrah)' 시즌을 위한 움라 비자 발급 개시
 -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하는 순례인 움라(Umrah)의 새 시즌을 맞이하여 5월 31일부터 움라 비자 발급을 개시하였음
 - 순례객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움라 허가증 및 메카 출입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

- (UAE) 에티하드 항공, 해외발 아부다비 입국객 대상 무료 여행자 보험 제공
 - 에티하드 항공은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7월부터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해 아부다비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최대 15일간 무료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

- (UAE) 7월 성수기 진입에 따른 UAE발 주요 아랍노선 항공 운임 최대 35% 상승 전망
 - 7월 여름 휴가 및 학교 방학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, UAE에서 카이로, 베이루트, 암만 등으로 향하는 주요 아랍 노선 항공권 가격이 6월 대비 최소 25%에서 최대 35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

- (GCC) IATA, '중동 항공사 43억 달러 규모의 적자 전환 전망
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는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영공 제한 및 허브 공항 기능 마비로 인해,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동 지역 항공사들만 총 43억 달러의 손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함
 -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행객의 49%가 올해 여행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하는 등 여객 수요 자체는 견고하여, 글로벌 항공업계 전체 매출은 전년비 9.4% 증가한 1조 1,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

- (튀르키예) 터키항공, '26/27 동계 시즌 동아시아 노선 대규모 확대 발표
 - 터키항공은 '26/27 동계 시즌 동아시아 핵심 노선인 베이징, 광저우, 홍콩, 오사카, 하노이, 호치민, 타이베이, 푸켓 노선 강화 예정임
 - 운항 횟수 증편 및 대형 기종 교체 등 공급 확대를 통하여 중동 항공 경쟁 상황에서 튀르키예를 중동의 새로운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임

□ **아웃바운드 여행 동향**

- (UAE) '26년 이드 알 아드하 황금연휴, UAE발 아웃바운드 여행 검색량 급증
 - '26년 이드 알 아드하 연휴가 5월 25일(월)부터 5월 29일(금)로 확정되면서 UAE 거주자들은 긴 연휴 동안 고향 방문 및 휴양 목적 여행 증가
 - 연휴 첫날 기준 UAE발 아웃바운드 검색량이 전주 대비 51% 급증하였으며, 주요 선호 목적지는 인도, 파키스탄, 이집트, 터키, 스리랑카 순임

- (UAE) 고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효율적인 얼리버드 여행 트렌드 정착
 - 국제선 출발 15~45일 전 사전 예약을 선호하며, 금요일에 출발하여 항공 비용을 최대 18% 절감하는 전략적 출발일 조율이 트렌드로 정착
 -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교통비 상승에 비용 부담이 큰 장거리 노선 대신, 편리하고 교통비가 적게 드는 근거리 국가나 국내 '로드트립', 스테이케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
- (카타르) 이드 알 아드하 기간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전년 동기 대비 75% 폭증
 - 이드 알 아드하 연휴를 맞이하여 카타르발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75% 폭증했으며, 인기 목적지인 런던, 파리뿐만 아니라 방콕, 발리 등 동남아시아 휴양지 노선이 전석 매진을 기록함
 - 항공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행시간이 짧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 등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 가능 지역 부상함

- (GCC) 유럽 폭염 격화에 따른 유럽행 여름휴가 수요 둔화
 - 유럽 전역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GCC 여행객의 유럽행 여름휴가 수요가 둔화 국면에 진입함
 - 여행객들은 휴가를 9월 이후 가을철로 늦추거나 대안 목적지로 중앙아시아, 동남아시아,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을 선택하고 있음

- (튀르키예) 튀르키예 여행객, 쇼핑 대신 '경험 중심' 목적지 선호
 - 치안, 문화적 진정성, 직항 노선 접근성, SNS 노출도가 목적지 선정 4대 핵심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기존 휴양 및 레저, 쇼핑에 치중되던 이전 트렌드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추세가 새롭게 형성됨

※ 출처 : 현지 언론 종합 (www.arabnews.com, www.khaleejtimes.com, www.gulfnews.com, www.thenationalnews.com 등)